

■ 2017년 문예지발간지원사업 심의총평

-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 2017년 문예지발간지원사업
- 회의일시 : 2017. 8. 18(금) 14:00~
- 회의장소 : 예술가의집 3층 세미나실2

2017년 8월 18일(금) 예술가의 집(3층 세미나실 2)에 7인의 심의위원(시인, 소설가, 평론가로 활동하는 문인)이 모여 문예지발간지원사업 심의가 이루어졌다. 심의대상 문예지는 장르별로 종합지, 시, 시조, 수필, 평론, 아동문학 등, 발간 시기별로 월간지, 격월간지, 계간지, 반년간지 등으로, 다양한 형태가 총망라된 문예지가 심의대상이 되었다. 문예지발간지원사업 심의는 이번 사업의 기간이 2017년 9월부터 2018년 4월로 8개월인 사정이 고려되었고, 예년과 비슷하게 지원 신청된 문예지 70건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심의 결과 문예지발간지원사업 지원금 총액(440,000,000원)이 문학 단체 및 출판사에서 발간된 총 33개 문예지에 배정되었다.

본격적인 심의에 앞서, '문학 창작 활동의 중요한 토대인 문예지의 발간을 지원하여 문학 창작과 비평 활동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 목적에 맞춰 향후 심의를 위한 준비 절차나 심의 과정에서 좀더 실질적인 정보를 중심으로 한 지원 신청서 양식의 개선이나 신청된 지원서의 요지를 유용한 정보를 중심으로 판정할 방법론이 요청된다는 의견이 제출되었다. 수렴된 의견이 보완되어 향후 좀더 진전된 사업 진행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 심의로 들어가서, 심의는 시종일관 진지한 분위기에서 장시간 이루어졌다. 지난 2-3년간 문학 안팎에서 크고 작은 사건들이 있었고 그 영향으로 문학장이 격변하고 있다. 문예지의 혁신을 포함한 문학장의 변화가 다각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심의위원들은 이러한 변화를 인지하는 자리에서 그 변화의 의미를 새겨보면서 문예지 심의를 진행하고자 했다. 문예지의 형식이나 발간 시기, 게재 문예의 범위 등에서 점차 기존의 고정된 형식을 벗어난 다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분위기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가 모아졌다.

이러한 입장을 중심으로 변화된 문예지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문예지의 미래를 어떻게 전망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견을 조율했다. 이 가운데 문예지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의 문제는 이번 심의의 경우 문학의 비중 여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기로 했다. 문학의 범주가 점차 확장되는 과정임을 고려하면서 문예지의 성격에 대한 규정은 차후로도 지속적으로 재고되어야 한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무엇보다 향후 기존 문예지와 독립잡지 형식의 문예지 심의에 대한 세심한 논의가 더해져야 한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심의는 심의의 전체적 방향성, 개별 문예지의 성격, 다양한 문예지의 차별적 성격 즉 장르별 문예지의 차별성, 지역별 차별성, 발간 주체의 차별성 등에 대해 심의위원들 간의 충분한 논의를 진행한 후, 심의위원들의 개별 채점을 거쳐 거기서 도출된 심의 결과를 놓고 통합적으로 최종 예산을 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심의를 주요 평가 기준은, 문예지 콘텐츠의 우수성, 사업 주체의 역량, 문학 발전의 기여도, 우수 작가 발굴 및 육성 등 사업 공고시 제시된 기준인 사업 계획의 충실성 및 타당성, 사업 계획의 실현 가능성, 문학 분야 발전에의 기여도와 파급효과를 토대로 했다. 이 원칙이 고수되는 선에서 심의 시기 발간된 문예지의 발간 목차가 보여주는 문예지의 수준과 지역과 장르, 발간 형태 차이 등 문예지별 차이도 차후적으로 고려되었다. 문예지가 보여주는 앞으로의 전망의 측면도 중요한 논의사항 가운데 하나였다. 장르별, 필진별 고정적이고 폐쇄적인 성격의 잡지보다는 새로운 문학 영역을 마련하려는 노력, 새로운 실험을 시도하려는 작업에 긍정적 논의가 모아졌다.

그 결과 흥미롭게도 전통적 형식을 고수하는 기성의 문예지가 선정되지 못한 경우가 생겼고 새로운 형식의 실험적 문예지가 선정되는 결과가 생겨났다. 이러한 심의의 결과는 문예지발간지원이 문학장의 변화를 반영하고 그에 상응해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그에 따라 지원의 방향도 바뀌고 있으며 바뀌어야 한다는 사실을 시사한다고 해야 한다. 이번 심의의 결과는 문학을 둘러싼 좀더 과감한 실험정신이 앞으로 좀더 많이 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그런 정신을 담은 문예지에 과감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전환적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7년 문예지발간지원사업 심의위원 일동
(권여선, 김화영, 소영현, 이상국, 이제하, 장옥관, 한정기)